

특강

## 예수성심성월교리



### 1. 예수 성심 공경의 의의

예수의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때문에 창에 찢리신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예수님의 영혼에 그리고 천주 성자위(聖子位)에 결합되어 있어 공경의 대상이 된다. 마음의 상태를 제일 먼저 드러내는 기관이 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심장을 이런 마음의 상징으로 삼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였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성사 안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며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 2. 예수 성심 공경의 중요성

예수 성심을 믿는 마음으로 열성을 갖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적 신심으로서의 정신적 측면이다.

#### 내적 신심

- (1)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기 위해 주의 생애, 수난, 성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성심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
- (2) 예수 성심을 사랑해야 한다. 성심의 사랑은 특별히 성체성사에 담겨 있으니 성체 앞에서 조배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공경해야 할 것이다.

#### 외적 신심

- (1) 예수성심 대축일 : 성체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축일로 정하고 배반당하신 성심을

## 월례교육

위로한다. 매달 첫 금요일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수난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팽개쳐져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상하는 지향을 두고 영성체하기를 아홉 달 동안 계속한다.

(2) 성시간 :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신 예수의 수난에 관하여 묵상하거나 합당한 기도를 바친다.

(3) 예수성심 성월에는 특별히 예수 성심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고 기도를 바친다.

예수 성심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성심을 공경해야 한다. 특별히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 청해야 하겠다.

### 3.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의 올바른 정신

이 신심의 참 뜻은 예수님의 구원적인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애정을 갖고 성심을 공경하며 사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의 인성이 갖고 있는 사랑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수난 당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한없이 커다란 고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애통해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보속함으로써, 그 고통을 감해 드리고 위로해 드린다는데 이 신심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 신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을 닮아 가는데 그 뜻이 있으며 성서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 신심이라 하겠다.

### 4.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행위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은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신심행위이다.

신심행위는 성사가 아닌 예배행위이며 이를 전례와 관련시켜 볼 때 준전례적인 행위와 비전례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수성심 성월의 신심행위에는 성시간,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 보속 등이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월기도로 '예수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바칠 것을 권장한다.

### 1) 예수성심 봉헌

예수성심 봉헌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에서 감성적, 이성적 사랑의, 그리고 신성의 측면에서 신적인 사랑, 즉 사랑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봉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인격 전체를 예배하는 신심행위이다.

그 내용은 (1) 그리스도의 구속사랑을 모방하고 (2)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을 봉헌하며 (3)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죄의 보속을 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심강림 후 둘째 주일 다음 금요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권고한 보속행위를 하면서 예수성심 축일을 지내고, 매월 첫 금요일에 보속의 정신으로 미사참여, 영성체, 성시간을 가지며, 그리스도왕 대축일마다 자신의 봉헌, 예수성심 호칭기도, 가정봉헌 기도를 바친다.

### 2)성시간

성시간은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서 한시간 동안 특별히 게췌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마태 26,40)라고 한 성서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된 성시간은 성체현시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공동체에 의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